

- ① 한글로 작성할 경우 양쪽 정렬을 해서 글의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좋음.
- ② 전체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을 잘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본론 또한 내용에 따라 장과 절을 구분하여 논의를 개진한 점은 좋음.
- ③ 현재의 상황에 잘 부합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음. 사실에 부합하는 근거에 기초하여 논의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④ 하지만 본론에서 개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의 에세이는 ppt 발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부터 더 나아간 핵심 논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⑤ 학생의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이 다 많아지거나 강화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하게 제시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⑥ 또한 학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떤 태도나 입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음
- ⑦ 따라서 <학생, 교수자, 학교 당국>의 각 입장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구성을 고려해볼만 함.

##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대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대학글쓰기 007반 202111667 김윤지

### 서론

‘COVID-19’라는 바이러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 대한민국에서도 COVID-19에 감염자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였다.<sup>1)</sup> 결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아예 멈추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에게 교육 활동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갑작스레 시작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 번 정도는 뉴스나 기사에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저자는 ‘교육’과 ‘수업권’은 뗄 레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온라인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저자는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대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번 탐구를 진행해보려고 한다.

1) 두산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1.10.20. 접속)

## 본론

### 1.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

#### 1.1. 교수의 강의 태도 논란 사례 (1)

2021년 10월에 있었던 H대학교의 한 전공 수업에서 A 교수가 9주차 온라인 강의에서 웹카메라를 켜지않고 음성으로만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업 도중 갑자기 웹카메라가 켜졌고 교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순간 학생들이 목격한 것은 교수가 욕조에서 온몸을 물에 담근 채 수업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었다. 사실을 알아챈 교수는 곧 카메라를 껐지만, 수업은 계속 진행했다. 일이 커지자 A 교수는 수강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코로나 백신을 맞고 고열이 났고 휴강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수업을 진행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sup>2)</sup>

#### 1.1.2. 교수의 강의 태도 논란 사례 (2)

대학생 A씨는 최근 교수가 “강의 중 말한 날짜는 무시하세요.”라고 올린 공지를 보았다. 영상 속의 교수는 2학기 동영상 강의에서 수업 일정이나 시험 날짜를 지난 5~6월로 언급했다. 알고 보니 1학기 녹화 강의를 재탕해 2학기에 다시 올린 것이다. 또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A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재활용 수업을 들으니 기만당하는 기분이었다.’, ‘전공 수업에서 교수님이 재작년 통계를 갖고 와 설명해 황당했다.’ 등 대학생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sup>3)</sup>

### 1.2. 학생의 강의 태도 논란 사례

한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중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 교수와 학생들이 난처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2) 박재현, “[단독] "화상수업 중 물소리"...목욕하며 강의한 교수", SBS뉴스, 2021.10.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3190&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3190&plink=ORI&cooper=NAVER) (2021.11.20. 접속)

3) 유소연,윤수정, ““시험은 5월 15일” “네? 지금 10월인데”... 교수님 영상, 1학기 재탕이었다”, 조선일보, 2020.10.24,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10/24/TUAQ2BP63ZFKJD32XCT6LPUBO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10/24/TUAQ2BP63ZFKJD32XCT6LPUBO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1.11.20. 접속)

모 학교 정치외교학과 온라인 강의 시간에 성관계 소리가 들렸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었다. 같은 이 수업을 같이 들은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 학생이 마이크를 켜둔 상태로 성관계를 했고, 관련 소리가 20분째 고스란히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었다.<sup>4)</sup>

### 1.3. 학생의 시험 부정행위 논란 사례

한 사립대 커뮤니티에는 23일 “답안을 공유하는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수강생들이 문제를 제기해 결국 이 과목은 과제로 시험을 대체했다.<sup>5)</sup> 한편, 인천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1, 2학년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3월 중순, 2학년은 전공수업인 근골격계 과목 시험에서 첫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렇게 부정행위를 들이지 않게 되자 학생들은 3월 말, 같은 과목과 4월 18일 내분비계 수업 단원평가에서도 답을 공유한 것이었다. 그리고 1학년들은 아예 필수 과목인 기초의학 총론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2학년 52명 중 41명, 1학년은 57명 중 50명으로 무려 80%가 넘는 학생들이 연루되었다.<sup>6)</sup>

## 2.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에 관한 반론과 재반론~~

-><학생, 교수자, 학교 당국>의 각 입장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생각해볼 것. 가능한 반론과 재반론은 앞선 본론의 내용 중 해당하는 부분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임.

이처럼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는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대면 수업을 진행하던 시절부터 존재했던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 대면 수업만 하던 시절에도 불성실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와 출석하지 않는 학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와는 달리 온라인 수업에서는 강의실 공간에서 발생하기 어려웠던 비교육적 상황이 비교적 더 쉽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만약 대면 수업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시험을 보았다더라면 교수가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나중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될 학생들의 80%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일 것이다. 아니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OVID-19로 인한 대학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남윤서, “교수는 욕조 목욕, 학생은 성관계…대학 비대면 수업 '요지경'”, 중앙일보, 2021.10.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459#home> (2021.11.20. 접속)

5) 한성희.이청아, ““건넌 막으려고 이렇게까지…” 부정행위에 대학가 몸살”, 동아일보, 2020.4.3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30/100871661/1> (2021.11.20. 접속)

6) 남효정, “'온라인 시험' 보냈더니... '톡' 하며 사이좋게 부정행위”, MBC뉴스, 2020.06.01.,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5397\\_3252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5397_32524.html) (2021.11.20. 접속)

### 3. 온라인 수업과 대학생의 수업권 침해 관계

COVID-19로 인해 실시한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는 교수와 대학생 간의 상호작용 미흡, 교수와 대학생의 강의·학습태도 논란, 시험 부정행위, 출석률 부진, 온라인 수업 홈페이지 서버 마비 문제 등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대학과 교수의 온라인 수업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수업권<sup>7)</sup>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권’이란 ‘학생이 교육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대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 3.1. ~~온라인 수업과 대학생의 학습권 침해 관계에 관한 반론과 재반론~~

교수와 학생은 COVID-19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로 인해서 별도의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이렇게 성급한 방법은 항상 탈이 나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학습자의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서 서버가 터진 온라인 수업 홈페이지와 계속해서 끊김 현상이 있는 온라인 강의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수업을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자도 이 이야기에는 동의한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학습권’<sup>8)</sup>만 보장되면 된다는 주의였다. 학습권이란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학습권’이 아닌 ‘수업권’이다. 보다시피 지금까지의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수업권’의 정의에 충족하지 못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결론

우리는 현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함께 삶을 살고 있다. 아마도 COVID-19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생활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예전의 일상을 되찾기 전까지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

7) 네이버 국어사전.우리말샘, 수업권 (2021.12.2. 접속)

8) 네이버 국어사전.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학습권 (2021.12.2. 접속)

저 학습권만 주장하던 예전의 대한민국과는 다르다.

따라서 ‘수업권’과 ‘학습권’의 차이를 바로 알고 이제는 학습권을 뛰어넘어 온라인 수업의 진정한 수업권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미래 사회의 인재들이 될 학생들에게 이 답답하고 막막한 온라인 수업의 굴레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대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무능한 온라인 수업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제야말로 대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차례이다.

저자는 이 주제가 현재의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온라인 수업에서 대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 도서 >

박상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2021

### < 논문 >

이영주, 「대학생의 비대면 강의 유형에 따른 교육 효과 분석 : 오프라인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이헌수, 「대학 원격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 M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3권 3호 (2020)

### < 인터넷 기사 >

박재현, “[단독] “화상수업 중 물소리”...목욕하며 강의한 교수””, SBS뉴스, 2021.10.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3190&plink=ORI&cooper=N 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3190&plink=ORI&cooper=N AVER) (2021.11.20. 접속)

유소연.윤수정, ““시험은 5월 15일” “네? 지금 10월인데”… 교수님 영상, 1학기 재탕이었다”,  
조선일보, 2020.10.24.,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10/24/TUAQ2BP63ZFKJD32XCT6LPUBO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10/24/TUAQ2BP63ZFKJD32XCT6LPUBO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1.11.20. 접속)

남윤서, “교수는 육조 목욕, 학생은 성관계…대학 비대면 수업 '요지경'”, 중앙일보, 2021.10.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459#home> (2021.11.20. 접속)

한성희.이청아, ““컨닝 막으려고 이렇게까지…” 부정행위에 대학가 몸살”, 동아일보, 2020.4.3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30/100871661/1> (2021.11.20. 접속)

남효정, “'온라인 시험' 보냈더니…'톡' 하며 사이좋게 부정행위”, MBC뉴스, 2020.06.01.,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5397\\_3252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5397_32524.html) (2021.11.20. 접속)